코스피 ▲ +80.60 (2522.15) | 코스닥 ▲ +41.59 (732.87) | 원·달러 환율 ▲ +2.70 (1377.50) | 금리(국고채 3년) ▲ +0.129 (2.935)

2024년 8월7일 수요일 전남일보

광주 제조업체 68% "中기업, 기술·품질 경쟁력 추월"

광주상의, 中 저가·물량공세 조사

62% "매출·수주 영향…피해 예상"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 등 절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책 마련을"

광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은 자사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이 중국기업에 추월당했거나 격차가 축소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현황 파악 및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광주지역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 중국 저가·물량공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업체들의 62.5%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인해 '실제 매출·수주 등 경영실적에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7.5%는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중국 저가·물량 공세에 따라 현재 겪고 있거나 향후 우려되는 피해로는 '판매단가 하락 압박'이 62.1%로 가장 많았으며, '내수거래 감소(46.3%)', '중국 외 해외판매 부진(30.5%)', '대중국 수출감소(13.7%)',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중단(1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국은 기술·품질 면에서도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5년간 자사의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이 중국 경쟁기업들과 비교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8%가 '이미 중국기업에 추월당했거나 격차가 축소됐다'고 답했으며, '계속 우위에 있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기업들 역시 중국기업들의 빠른 성장 속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기업들이 자사 기술력을 '5년 이내에 추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69.3%를 차지했으며, '6~10년 이내' 또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4.7%, 1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 기업들은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55.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30.3%)', '제품 다변화 등 시장 저변 확대(29.6%)', '현지 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21.1%)', '인건비 등 비용 절감(18.4%)', '대응전략 없음(13.8%)' 순으로 답했다.

중국의 공세에 따른 피해 유형별 기업의 대응현황을 살펴보면, 판매단가 하락 압박, 내수거래 감소, 해외판매 부진을 겪었거나 우려하는 기업들은 '품질 향상'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국 수출 감소,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중단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신규 수출시장 개척·공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38.2%)'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연구개발(R&D) 지원 확대(32.9%)', '신규시장 개척 지원(32.2%)', '무역금융 지원 확대(12.5%)', 'FTA 관세 혜택 활용 지원(11.2%)' 등의 순으로 답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내수거래 감소를 겪었거나 우려하는 기업들은 '국내 산업 보호조치 강구'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답했으며, 판매단가 하락 압박,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축소·중단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외 해외판매 부진, 대중국 수출 감소를 겪거나 우려 중인 기업들은 '신규시장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내수 부진과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와중에 중국 제품들이 가격은 물론 품질에서까지 경쟁우위를 지니게 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중국의 공세에 맞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지원 및 보조금 확대 등 다각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들 또한 기술 혁신과 품질 고급화, 전문인력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기아 오토랜드광주, '기아챌린지 과학교실' 성황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6일 11년째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 챌린지' 사업의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인 '수상한 과학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수업보단 알찬! 상상력 가득한 과학교실'의 줄임말로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 광주지역내 아동,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한 과학교실은 지난해에도 다양한 과학 체험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줄 수 있도록 올해도 수상한 과학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국립광주과학관과 함께한 수상한 과학교실은 12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해 2024 다이노 월드 특별전, 특수영상관, 과학교육프로그램 등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 관계자는 "수상한 과학교실이 아동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며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아동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난 5월 사회공헌 중점사업으로 성장세대(청소년 및 소외계층 아동) 대상 문화컨텐츠를 통한 긍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기아 챌린지에 1억6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호남 다문화가정 학생 '다다캠프' 성료

금융교육·진로탐색·스포츠체험
특강·텐텐 양궁단 재능기부 호응

광주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박 3일간 정읍시에 위치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多채로운 多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개최된 캠프는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사업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에게 △금융교육 △진로탐색 △스포츠체험 △다문화강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가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서 교육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웹툰 제작 프로그램, 유튜버 유라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체험, 2018년 한국으로 귀화한 튀르키에 출신 '알파고 시나씨'의 다문화 특강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박 3일간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다캠프'를 열었다. 광주은행 제공

또한, 이번 캠프에는 광주은행 소속 스포츠단 '텐텐(Ten Ten) 양궁단', '비츠로(VITZRO) 배드민턴단'이 재능기부로 참석해 양궁, 배드민턴의 기본자세와 경기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일대일로 기본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등 아이들이 선의의 경쟁 속에서 협동심과 집중력, 인내심을 경험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이끌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신세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 오픈

31일까지 포장 서비스·증정품 행사

광주신세계가 일상 속에 귀여움을 더한 물품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을 오픈해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6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위글위글' 오픈기념으로 신관 지하 1층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위글위글은 오는 31일까지 선물 포장 무료 서비스와 전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부채를 증정한다. 또 당일 5만원 이상 구매 시 파티초, 10만원 이상 구매 시 펄프 수세미, 당일 15만원 이상 구매 시 폴더블 매트 세트를 증정한다. 디자인은 랜덤이며 한정수량으로 선착순 증정이다.

광주신세계에 문을 연 위글위글은 아케이드형 '오락실'을 콘셉트로 위글위글만의 컬러와 패턴으로 재밌는 게임 콘셉트를 입혀 재해석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아케이드는 오락실 등 특정장소에서 하는 게임을 일컫는 말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오락실이 주로 쇼핑 아케이드 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에서 유래했다.

위글위글 아케이드에서는 유리컵, 텀블러 등 생활용품부터 키보드 등 사무용품을 비롯해 의류까지 총 300여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위글위글은 'COLOR', 'FUN', 'WIT' 3가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고 감각적인 컬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체 제품과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로 유명한 브랜드다. '뻔한 물건을 펀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바일 액세서리로 시작해 현재는 리빙, 패션, 트래블 등 카테고리를 확장하면서 2030세대에서 나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위글위글은 라이프 스타일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귀엽고 독보적인 아이템이 많은 브랜드"라며 "위글위글만의 다양한 제품들을 광주신세계에서 직접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팀 삼성갤럭시 선수들, '삼성 올림픽 체험관' 방문

신유빈·안세영 등 팀 멤버
갤럭시 AI로 각국 선수 교류

파리올림픽 기간 중인 지난 7월25일과 8월3일 팀 삼성 갤럭시 멤버인 신유빈(한국, 탁구), 안세영(한국, 배드민턴), 알레한드라 오로즈코 로사(멕시코, 다이빙), 재거 이튼(미국, 스케이트보드) 등 여러 선수가 올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팀 삼성 갤럭시의 글로벌 선수들이 함께 교류하고, 올림픽 선수촌에서 다채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트래블 위드 갤럭시 AI'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갤럭시 AI를 마음껏 활용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통역 기능으로 자유롭게 소통했고, '포토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해 피사체의 위치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등 갤럭시 AI의 생성형 편집 기능도 경험했다.

또 선수들은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며 삼성전자에서 준비한 '삼성 2024 파리 올림픽 핀'을 수집하고 선수들끼리 교환하기도 했다.

팀 삼성 갤럭시 멤버인 신유빈, 빅토르 악셀센, 알레한드라 오로즈코 로사 선수가 지난달 25일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 포토존에서 셀피를 찍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신유빈 선수는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언어에 대한 장벽 없이 갤럭시 AI를 통해 대화할 수 있어 좋았고, 파리 올림픽 동안 팀 삼성 갤럭시 선수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즐거웠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